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국회의원, 당직자 등은 14일 오전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 후 국민에게 대한 패배에 대한 사죄의 3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비대위 첫 일정 '참회행보'

지도부·현역의원·당직자 현충원 참배

오늘 광주서 대국민 사과 '회초리 투어'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대국민 '참회 행보'로 첫 일정에 나섰다.

문화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의원 40여명과 김원기·정동영·권노갑 상임고문, 당직자 등 민주당 관계자 200여명은 이날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민을 상대로 '사죄의 삼배'를 올렸다.

이들은 "빠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한 반성과 참회로.." 등의 말과 함께 어둡고 비장한 표정으로 삼배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현충원에서 "열

화와 같은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제 사즉생의 각오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60년 정통 야당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며 "일체의 기득권이나 정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번에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서 "백가지 말이 아니라

한가지 실천으로 뱃속까지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충원 참배에 민주당 127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참석,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진정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장, 이용득 비대위원은 "127명의 의원이 참배에 대해 과연 반성을 하는지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핵심 당직자는 "반성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반성을 시작하는 현충원 참배부터 현역 의원들이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에게 눈엣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우리가 연락을 못 했거나 외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개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속 이야기하면 이견으로 비친다"고 말해 첫 회의부터 뼈저거

리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문 위원장 등 지도부는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대통령의 종교동 사저를 찾아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에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사죄의 삼배를 올렸다.

당 지도부는 15일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16일에는 경남으로 발걸음을 돌려 김해 봉하마을과 부산 민주공원을 찾는다. 이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른바 '회초리 투어'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진정한 반성을 한다며 전 국민 투어를 한다는 데 돌아다니기 보다는 진정한 해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모를까, 또 다시 과거와 같은 계파간의 담합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민주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 정체성 정립 쓰고 노선투쟁 조직

비주류 "당 이념 중도로 가야"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리자마자 당 정체성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친노(친노·무현)세력의 '좌클릭' 행태와 대선패배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에 친노세력이 반발하는 등 계파간 노선투쟁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는 조만간 본격화될 대선 평가과정에서 주류·비주류 간 격돌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단 비대위에 포진한 중도·비주류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의 이념지도를 중도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우클릭'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비주류 세선의 문병호 비대위원은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을 해체해도 좋다는 각오로 혁신

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화나 독재나 하는 이분법적 구조나 운동권 논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주류 3선인 안민석 의원도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에입니다'에 나와 "이번 대선을 끝으로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정치 구조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탈(脫)이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는 지난 총선부터 친노·주류가 주도한 '좌클릭'이 중도·무당파, 연령대에서는 50대층의 민심이 반영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 내 범주류 쪽에선 지나친 노선 투쟁이 소모적 반란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진보적 선명성을 유지

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또 친노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친노 직계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친노(친노·무현) 책임론과 관련, "친노라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며 "그러한 논의는 민주당의 분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친노라는 이름을 갖고 책임공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길 수 있는 총선, 대선을 진 본질적 원인은 당 내부의 계파에 있다. 계파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친노 패권주의'를 겨냥한 뒤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전면에 나선다면 친노-비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물아 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균형감각 잃어...체질·문화 개선 시급"

민주 비대위원 김동철 의원 인터뷰



대선 패배의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했던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민주당을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견인,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일보에 14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을 대표해 비대위에 참여한 김동철 의원(광산 갑·3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당의 최대 현안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다. 엄정한 대선 평가 없이는 해신과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 해신과 혁신의 비전 없이 전당대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결국,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비대위의 대선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실무적인 것은 민주당정책연구원 등에서 진행할 것이다. 대선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외부인

사들을 중심으로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대선 평가위가 구성돼야 한다. 이번 주 내에 대선 평가위가 구성될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계파 문제가 민주당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았다.

▲계파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체질과 문화다. 과거에는 DJ라는 결속한 지도자가 있어 당이 소리 없이 좌우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DJ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균형 감각을 잃었다. 조화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접근보다는 정적되지 못한 정책과 노선들이 민주당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운동권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다. 경제적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 진보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체질과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엄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대

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내 인사들은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강력한 해신책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의 도전이 가시화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눈길도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친노 패권주의와 양지 지향적인 당내 486 그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의 부정부패 체질과 문화 형성이 있어 친노 그룹과 486 그룹이 양자 선 경향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호남 지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헌명하고 희생적 결단을 했다. 그러나 호남 정치권은 그동안 각 계파에 줄 서기를 하는 등 퇴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 민주당이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는 호남 정치권의 각성을 뜻하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도 참회담사 신계륜 의원 "민생과 연결 못해 민주당 실패"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의 실패는 진보든 혁신이든 민생과 연결되지 못하고 구조에만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노 그룹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민주정부 10년의 길, 반성과 참회 그리고 혁신-국민 속으로' 도보 행진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의 생존, 생활과 결할하지 않는 진보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보 행진에 나서는 의미에 대해 신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참회, 미래 설계를 위해 신안 하의도 고 김대중대통령 생가와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이르는 남도 도보 답사 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도보행진을 통해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 길을 거닐면서 지역 민들의 의견을 허심탄화하게 들어서 국회 안에서 했던 정책들이 민생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지자 30여명은 지난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인 하의도를 시작으로 14일 전남도청을 거쳐 16일에는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까지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투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대비 고수익 보장

NPL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소득세 無
▶소액투자 가능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등도 / 정확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종원 이사 010-8227-7759	
물류센터 [전북김제]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근린시설[수기동] 대197㎡, 건722㎡, 감정가 14억, 최저가 7천	북구 대촌동[2층공정]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북구 대촌동[2층공정]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주유소 [나주남평] 대4428㎡,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신안읍에 [횡집, 판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운암동 [근린시설]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지330평, 건물1016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오양병원직접
원룸[계림동] 대333㎡,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상가[신창동] 대 67㎡, 건 134㎡, 감정가 2억45천, 최저가 1억1천	첨단 [오피스텔]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공장 [나주공산] 대29710㎡,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공장 [장성동화] 대1983㎡,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임야 [전주완산]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입대 및 매매, 인수회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 Open 예정인 (주)솔향기닷컴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찬모(여)2명, 실컷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통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구주택(원룸, 투룸, 스키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현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현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차고용도로 적합
- 비야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